전북지역 어업생산량 감소세

최근 5년간 기준… 천해 양식 어업 줄고 내수면 어업 변동 없어

전북지역 어업 생산량이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30일 호남지방 통계청에 따르면 전북지역 최근 5년간 연평균 어업 생산량은 5만4,000톤으로 집계됐고 2015년 어업 생산량은 4만5,000톤으로 2011년 7만1,000톤보다 2만6,000톤(37.4%)가 감소했다.

어업별 생산량을 들여다보면 일반해면 어업 생산량 점유률은 40.1%으로 조사됐고 2011년 3만1,000톤에서 2015년 2만1,000톤으로 9,000톤이 감소했다.

천해 양식 어업 생산량도 감소했다.

2011년 3만5,000톤에서 2015년 1만7,000톤으로 1만8,000톤이 감소했다.

내수면 어업 생산량은 최근 5년간 생산량 점유율에 대한 변동이 없었다.

멸치, 참조기 등 주요 품종별 어류 생산량을 살펴보면 전북지역 멸치 생산량은 2011년 7,625톤에서 2015년 2,438톤으로 5,187톤(68.0%)가 감소했다.

참조기 생산량도 2011년 2,821톤에서 2015년 1,339톤으로 1,482톤(52.5%) 감소했다.

꽃게, 꽃새우 등 갑각류 생산량도 역시 감소했다.

전북지역 꽃게 생산량은 2011년 1,300톤에서 2015년 1,132톤 생산으로 168톤(12.9%) 감소했다.

꽃새우도 2011년 1,171톤에서 2015년 558톤 생산으로 613톤(52.3%) 감소했다.

패류의 경우는 바지락과 굴의 생산량이 엇갈렸다.

전북 바지락 생산량은 2011년 1만7,986톤에서 2015년 4,544톤 생산돼 1만3,442톤(74.7%)감소했다.

반면에 굴 생산량은 2011년 1,348톤에서 2015년 1,767톤 생산돼 419톤(31.1%)증가 했다.

연체 동물류 생산량도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전북 꼴뚜기 생산량은 2011년 655톤에서 2015년 255톤 생산돼 400톤(61.1%)감소했지만 갑오징어류는 2011년 249톤에서 2015년 1,711톤 생산으로 1,462톤(587.1%) 증가했다.

한편 주요 품종별 생산량 순위로는 김류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신광영기자

블루 웨이브 팝업스토어 오픈 30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백화점 본점에 마련된 르쿠르제 지사 창립 11주년 팝업스토어에서 모델들이 '블루 웨이브' 신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소셜벤처 경연대회 사업설명회 개최

전북경제통상진흥원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이하 '경진원')오는 6월 3일 오후 2시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2016년 소셜벤처 경연대회 사업설명회를 갖는다.

이번 설명회는 대회에 관심있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소셜벤처 정의', '소셜벤처 경연대회 소개' 등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며, 이해를 돕기위한 자세한 안내와 사례 발표로 진행된다.

소셜벤처는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벤처정신으로 사회문제의 솔루션을 제공하는 혁신적인 기업모델'을 말하며, 소셜벤처 경연대회는 이러한 소셜벤처 아이디어를 통해 사회를 보다 건강하게 하는 사회적기업 모델을 발굴하고 사업화를 지원하는 대회이다.

이번 대회는 사회문제 해결에 대한 아이디어를 갖고 있거나 소셜벤처 사업화 계획을 가진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총 4개 부문(솔루션, 청소년, 창업아이디어, 글로벌)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대회는 예선심사, 권역심사, 본선심사를 통해 수상자를 선정하고, 부문별 최대 2,000만원의 상금을 수여한다. /신광영기자

익산국토청, 안전의식함양 호남 건설안전사진 공모

익산국토청이 호남지역 건설현장에 안전 의식을 확산시키기 위해 사진 공모전을 실시한다.

30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 따르면 건설재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건설 현장에 안전의식을 확산시키기 위해 '건설안전 사진 공모전'을 추진한다.

공모기간은 6월 1일부터 30일까지이며, 건설현장 종사자는 물론 학생, 일반인 등 건설안전에 관심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1인당 2점까지 응모할 수 있다.

건설현장 안전의 중요성이 부각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사진이면 모두 가능하며, 연출 및 편집된 사진도 가능하다.

제출된 사진은 심사를 통해 최우수상 1명, 우수상 3명, 장려상 5명 등 총 9명을 선정한다.

심사는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호남지역 안전실천협의회소속 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해 진행하며, 입상자는 개별 통보(7월말)한 후 8월중에 포상할 계획이다.

응모는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에서 지원서를 다운받아 사진 제목과 간략한 사진 내용을 작성한 뒤 사진과 함께 담당자에게 e-mail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http://iroom.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 문의는 익산청 건설관리실(063-850-9426)로 하면 된다. /신광영기자

전북상의협, 한은 전북본부 화폐수급 복원 촉구

화폐수송거리 길어 경제적 손실

전북도상공회의소협의회(회장 이선홍)는 한국은행 전북본부의 화폐수급 업무 복원을 강력히 촉구했다.

30일 전북상공회의소협의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전북도내 많은 금융기관들이 광주와 대전까지 원거리 화폐수송을 하게 됨에 따라 발생하는 시간적·경제적 손실은 물론 현금수송에 따른 도난과 사고발생이 우려되는 등 부담이 큰 상황"이라며 "전북지역 금융기관의 화폐수송 부담이 경감되고, 지역내 화폐수급이 더욱 원활해질 수 있도록 한국은행 전북본부의 화폐수급업무 복원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전북상공회의소협의회는 "최근 한국은행이 인천본부와 강원본부에 대해서는 원거리 수송을 하게되는 현송불편과 관련비용 등 리스크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오는 6월 1일부터 화폐수급 업무를 개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가뜩이나 전라북도는 인근 대도시 예속으로 지역낙후와 차별 등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화폐수급업무의 광주와 대전이용에 따라 전북도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고 반발했다.

실제로 이번에 화폐수급업무가 재개되는 인천본부의 경우 화폐수송 거리가 경기본부가 있는 수원까지는 49km, 본부가 있는 서울까지는 43km인데 반해 전북본부의 경우 전주에서 광주전남본부까지 100km가 넘고, 대전충남본부까지는 85km임을 감안할 때 한국은행 전북본부의 화폐수급업무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전북은 기금운용본부 전북혁신도시 이전을 계기로 금융산업 특화도시로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으며, 전주는 국내 3대 지방은행이자 인천과 경기, 충청, 호남을 통틀어 서부권역 유일의 지방금융지주사인 JB금융지주 등 다양한 금융기관이 위치해 있음을 감안할 때 한국은행 전북본부의 화폐수급 업무의 재개가 절실한 상황이다.

전북지역 금융권 관계자는 "지난 2012년 2월 한국은행 지역본부 화폐수급업무의 광역화 조치에 따라 전라북도의 경우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화폐를 발행하고 환수하는 화폐수급업무가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와 대전충남본부를 통해 처리하고 있다. 인천과 강원과 달리 왜 전북지역은 화폐수급업무에서 제외되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신광영기자

전북지방중소기업청, 예비 창업자 모집

전북지방중소기업청(청장 정원탁)은 앱/웹, 콘텐츠, 융합소프트웨어 분야 육성을 위한 '2016년도 스마트벤처창업학교'에 입교할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자를 모집한다.

최종 선정된 청년창업자는 교육 및 멘토링, 인프라, 성장프로그램을 비롯해 사업화에 자금을 최대 1억원(총사업비의 70% 이내)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모집신청기간은 오는 6월 13일까지이며, 이후 서류평가, 발표평가, 관찰식 멘터링 캠프, 최종선정 등 4단계를 거쳐 160명 내외를 최종 선정한다. 신청은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을 해야하며, 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도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전북지방중소기업청 정원탁 청장은 '스마트벤처창업학교가 청년창업자의 꿈을 향한 도전의 초석이자 신산업의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우수한 청년창업가의 육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신광영기자

전북은행, 나눔걷기 캠페인 개최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임용택)은 28일 롯데백화점 앞 천변 야외광장에서 대한적십자사 전북지사, 티브로드 전주방송과 함께 '제4회 아름다운 동행 희망풍차 나눔 걷기 캠페인'을 공동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역사회 나눔 문화를 확산하고 건강한 지역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는 전북은행 임직원 및 전북도민 1,600여명이 참여해 1m에 1원씩 총 5km를 걸으며 5,000원을 기부하는 나눔을 실천했다. 또한 참가들에게는 걷기대회 배번 등의 기념품과 추첨을 통해 경품도 함께 제공됐다.

전북은행 오병진 부행장은 "걷기행사를 통해 도내에 나눔 문화가 확산되었길 바란다"면서 "행사를 통해 마련된 성금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소외계층 이웃들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영수 기자

전북농협, 벼 직파면적 확대

89ha면적 추진 중

전북농협(본부장 강태호)이 농가의 생산비 절감과 고령화된 농촌의 일손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벼 직파재배 면적 확대에 힘을 쏟고 있다.

30일 전북농협에 따르면 올해 도내 11개 농협에서 46농가에 89ha면적의 직파재배를 추진 중이다.

현재까지 50ha의 직파재배를 실시했으며 6월 초까지는 벼 직파를 완료하고 생육상태를 관리할 계획이다.

전북농협은 벼 직파 확대를 위해 지난 2월 벼 직파재배 기술교육을 시작으로 20일에는 부안 백산에서 부안농업기술원과 전북농업기술원과 공동으로 직파시연을 실시했다.

강태호 전북본부장은 "벼 직파재배가 생산비 증가와 일손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농촌, 농업인에게 큰 희망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고민형 기자

신보, 우수기업 지원 업무협약

신용보증기금 호남영업본부(본부장 한기정, 이하 신보)는 KEB하나은행 호남영업그룹 전북본부(본부장 양호열, 이하 하나은행), 전북창업보육협회(회장 김태철)와 '성장성 우수기업 발굴 및 금융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6월 초순부터 본격적으로 협약보증을 공급한다. 이번 업무협약은 전북지역 성장성 유망 창업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창조경제 기반을 조성하고자 마련됐다. /정영수 기자

'참예우' 전주롯데백화점 입점

롯데백화점 전주점(점장 박중구)에 전북지역 청정 축산물인 '참예우'가 들어선다.

롯데백화점 전주점은 지난달 전북진안 귀농인 표고버섯 직구매에 이어 최근 전북 고창 부안축협를 방문, 지역 한우입점을 추진키로 했다.

지난 26일 박중구 롯데백화점 전주점장과 상품본부 바이어를 포함한 관계자 5명은 고창부안축협 관할 '참예우' 한우 농가와 가공장등을 방문해 한우의 비육상태 및 위생상태등을 확인하고 고창부안축산업협동조합 조합장과 입점에 따른 세부사항을 협의했다. /신광영기자